

우리문화

2011.09 Vol. 230 September



찾아가는 다문화 공연

2011년 
다문화 지역순회공연

함남 마당극패 우금치의
“선녀와 나뭇꾼”

충남 (사)아리수의 다문화 민요콘서트
“우리 하나가 되어”

서울 (주)아트브릿지의 다문화 교육연극
“게르아저씨”

부산 (주)파임커뮤니케이션즈의
“아시아 동화여행”

대전 극단 Art-3 Theater의
“콩콩이와 친구들”

지역	일시	장소	공연	지역	일시	장소	공연
전남 해남	05월 21일 (토) 13시	해남문화예술회관	우리 하나가 되어	제주	07월 23일 (토) 18시	제주박물관	아시아 동화여행
울산 울주	05월 22일 (일) 11시	울주군민체육관	아시아 동화여행	충남 부여	07월 30일 (토) 15시, 19시	부여박물관	아시아 동화여행
전북 순창	05월 27일 (금) 10시	순창군향토회관	우리 하나가 되어	경북 김천	08월 04일 (목) 17시30분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아시아 동화여행
충남 예산	06월 14일 (화) 14시	예산웅산초등학교 체육관	콩콩이와 친구들	강원 원주	08월 23일 (화) 19시	원주치악예술관	선녀와 나뭇꾼
부산 사상	06월 21일 (화) 9시, 11시	부산주감초등학교	게르아저씨	충북 청주	08월 26일 (금) 19시	청주박물관 야외무대	선녀와 나뭇꾼
경남 양산	06월 25일 (토) 13시	양산초등학교 강당	게르아저씨	광주 북구	08월 28일 (일) 18시	광주박물관 대강당	아시아 동화여행
대전 동구	07월 06일 (수) 13시40분	대전충흥초등학교 다목적실	콩콩이와 친구들	경북 청송	09월 01일 (목) 14시30분, 19시30분	진보문화체육센터	선녀와 나뭇꾼
강원 평창	07월 08일 (금) 11시	진부초등학교 강당	콩콩이와 친구들	대구 동구	09월 03일 (토) 19시	대구문화체육회관	선녀와 나뭇꾼
전남 담양	07월 12일 (화) 14시	담양문화원	우리 하나가 되어	서울 은평	09월 23일 (금) 19시	은평문화예술회관	선녀와 나뭇꾼
서울 금천	07월 15일 (금) 19시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우리 하나가 되어	경남 진주	09월 24일 (토) 15시, 18시	진주박물관 강당	게르아저씨
경기 이천	07월 16일 (토) 16시	이천아트홀	우리 하나가 되어	인천 강화	09월 24일 (토) 14시	강화군문화회관	콩콩이와 친구들
제주	07월 22일 (금) 19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아시아 동화여행	경기 양주	10월 01일 (토) 16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선녀와 나뭇꾼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1. 09 Vol. 230 September

Contents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
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
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
장), 김종(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
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
니다.

02 연합회 소식	지역문화경영과정
05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사업 워크숍
0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컨설팅 · 컨설턴트 양성 심화교육 워크숍
0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나눔봉사단 공연
10 당동 반갑습니다	강릉문화원
13 사무국장 릴레이	충북지회 해외연수
16 문화원 이야기	함양문화원
18 문화나눔	클래식 음악회
20 객원기자단 소식	남원문화원
22	경주문화원
24 문화들러보기	「과천의 어제와 오늘」전(展)
26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돋보기
31	우리문화 소식
32	동정

지역문화경영과정

실행역량 UP 창조역량 UP 실용기량 UP 창조기량 UP



한국문화원연합회 2011년 지역문화경영과정이 지난 23일(화)부터 27일(토)까지 4박 5일간 서울 영등포 소재의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교육의 특별초청강연으로 김장실(예술의 전당 사장)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KOREA」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전국 시·도지회 및 지방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과정은 초급 33명, 고급 17명이 참여했다. 초급과정은 실행역량강화(기초이론, 실무능력 및 기획력 중심)으로, 고급과정은 창조역량강화(심화이론, 창조력, 사례워크숍 중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고급과정은 중급과정 이수자에 한해 교육되었다. 최우수 수료생 1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시상 및 해외연수 제공, 수강인원 약 20%(팀 및 개인) 차기년도 해외 연수 제공, 고급과정 우수 수료자는 자문위원 및 컨설턴트로 활용(연합회 전문가뱅크 등록)되어지는 특전을 안았다.



■ 초급과정 / 강사 및 강의내용

과 정	강의 제목	강사명(소속)	강의 내용
공 통 과 목	특별초청강연	김장실(예술의 전당 사장)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KOREA」
	사대전략특강 (뉴미디어시대의 문화경영전략)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뉴미디어의 발전과 다양화, 전문화되어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문화관련 홍보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전략을 알아본다
	문화체험	라이어/연극관람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물들어가는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
이 론 과 목	문화원운영실무(법인관리)	장상호(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총회, 이사회, 법인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지역문화정책의 이해	이흥재(추계예술대학교 교수)	문화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내용과 방향 등을 연구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조성한다.
	프로그램 운영사례연구	심오섭(강릉문화원 사무국장)	지방문화원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경험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은 운영 사례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학습한다.
	홍보실무	임연철(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보도자료 작성, 기획기사의 작성과 배포, 언론기관 및 평론가와의 관계 등 홍보의 기본기법들을 익힌다.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최중호(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지역의 다양한 유형형 문화재와 뜻깊은 역사적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기록, 자연유산 등 포함)
	공모사업기획실무	박상언(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장)	문화원의 사업영역 확장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실무 능력을 키운다.
	문화정보활용실무	이호신(국립예술자료원 정보서비스팀장)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문화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학습한다.
	지역문화해설방법	최선경(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 회장)	지역문화해설사의 양성과 활용 방법, 인력의 구조화 및 관리를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일상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안목을 키운다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한	박성복(평택교육청) 2010 고급과정 우수수료자	스텝 I : 주제발표 및 컨설팅, 기획안 방향 설정
조 별 위 크 숍	문화원간 교류/협력	심오섭(초급과정강사)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스텝 II : 기획안 구체화 및 정리 스텝 III : 발표자료 완성 및 준비(발표자 선정) *조별 워크숍/각 주제별 2팀 구성 ※교육생 주제 선정은 우선순위를 받아 연합회에서 지역, 직급, 역할, 관심사에 따라 재조정함.
	지역주민 참여/주도형	허모영(김해교육청) 2010 고급과정 우수수료자	
	워크숍 종합발표 및 평가	이흥재(추계예술대학교 교수)	각 주제별 워크숍 결과를 초급, 고급과정이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 고급과정 / 강사 및 강의내용

과 정	강의 제목	강사명(소속)	강의 내용
공 통 과 목	특별초청강연	김장실(예술의 전당 사장)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KOREA」
	시대전략특강 (뉴미디어시대의 문화경영전략)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뉴미디어의 발전과 다양화, 전문화되어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문화관련 홍보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전략을 알아본다.
	문화체험	라이어/연극관람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물들여지는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
	문화원운영실무 (법인관리)	정상호(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총회, 이사회, 법인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 론 과 목	문화인류학 concert (로컬과 글로벌의 만남)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로컬과 글로벌 현대적인 추세로 지역문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트렌드 분석한다. (※예/한국의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지역문화 관점에서의 대비방안)
	문화경제학 concert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임상오(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문화예술분야에서 공공성 개념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고 목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개념의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아울러 객관화된 공공재(public goods)개념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역할을 제시한다.
	장소마케팅 (국내외 사례)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장소가 가지는 특성과 의미를 이용하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마케팅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문화 상상력과 지역창조론 인이영노(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 QX대표) (국내외사례중심)		무안한 상상력을 통해 지역문화 창조는 이루어진다. 문화원중심문화사업 성공사례와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문화기획의 상상력을 키워본다.
	지역문화의구체화 - 국내사례 -	박명배(경북미래문화재단 대표)	지역문화의 사례를 통한 개별 지역의 정확한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지역문화활동 및 정책지원방안 마련을 고민해 본다.
세 미 나	지역문화의구체화 - 해외사례 -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국내의 지역문화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의 다양한 민족지적 사례의 이해를 통해서 globalism과 localism의 결합을 통한 glocality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본다.
	주제별 세미나 토론중심)	각 주제별 조별 세미나 (생방향 토론: 컨설턴트 3분)	각 주제별 컨설턴트와 함께 각 주제별 강론과 상호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는 워크숍을 준비하도록 한다.
조 별 워 크 숍	문화원중합발전계획(안) 기획과정	이흥재(주계예술대학교 교수)	스텝 I: 주제발표 및 컨설팅, 기획안 방향 설정 스텝 II: 기획안 구체화 및 정리 스텝 III: 발표자료 완성 및 준비(발표자 선정)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인이영노(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 QX대표)	
	지역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조별 워크숍/각 주제별 2팀 구성 ※교육생 주제 선정은 우선순위를 받아 연합회에서 지역, 직급, 역할, 관심사에 따라 재조정함.
종합 발표	워크숍 종합발표 및 평가	이흥재(주계예술대학교 교수)	각 주제별 워크숍 결과를 초급, 고급과정이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연합회 소식

2011 문화예술 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컨설팅 워크숍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사업 워크숍

29개 지원 중 25개 문화원 선정

과천문화원에서 워크숍 가져

지난 8월 18일(목) 11시부터 5시 30분까지 2011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사업계획서 기획·보완 및 사업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문화원 실무자 및 전문가간 컨설팅 워크숍이 열렸다. 사업계획서의 보완 등을 통해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등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우리회 전명찬 사업부장 외 3명, 사업선정 25개원 실무자, 컨설턴트 2명이 참여했다.

※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사업이란?

2009 개정 교육과정('09.12.23 고시) 도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 제기됐으며 2012년 초·중·고등학교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필요성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내 5대문화기반시설(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과 손을 잡고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와 특징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하였다.

▶ 2011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선정 문화원 현황

순번	지역	문화원	유형	문화예술영역	순번	지역	문화원	유형	문화예술영역
1	서울	성동	지역문화	연극	14	파주	지역문화	감상, 체험	
2		송파	지역문화	전통놀이	15	평택	지역문화	음악	
3	부산	부산동래	지역문화	음악	16	하남	지역문화	무용	
4	인천	인천연수	지역문화	방송	17	강원	동해	지역문화	뮤지컬
5	광주	광주광산	지역문화	공예, 다례	18	충남	공주	지역문화	연극
6		광주남구	지역문화	연극	19	전북	남원	지역문화	미술
7	대전	대전대덕	지역문화	영화	20		부안	지역문화	무용
8	울산	울산중구	지역문화	뮤지컬	21	전남	구례	교과모임	답사
9	경기	과천	지역문화	연극	22		보성	지역문화	향토사
10		동두천	지역문화	전통체험	23	경남	거창	지역문화	연극
11		안산	지역문화	사진	24		김해	교과모임	영상
12		안성	지역문화	음악	25		함안	지역문화	공예
13		연천	지역문화	다례					



워크숍 전경

연합회 소식

지방문화원어르신프로그램은 우리가 책임 집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컨설팅 및 컨설턴트양성 심화교육 워크숍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워크숍 및 컨설턴트양성 심화교육 워크숍이 지난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과천문화원에서 열렸다.

컨설턴트양성 심화교육이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진행되었고 문화원 사무국장 및 담당자 100여명이 모이는 자리였다. 2011년 동사업 신규추진 문화원 22개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42개원, 어르신생활문화전승 13개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컨설턴트양성



공연을 보고 있는 (좌부터)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영규 과천문화원장



과천문화원 "뗏다 쿵따리 3040"의 공연



강의 모습

심화교육 13명 등이 참석했다.

공동교육으로 사업성과제고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컨설팅과 단위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동사업 신규추진 문화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관리 컨설팅,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재능기부트렌드 및 공연기획·제작 강의, 동사업 컨설팅 양성교육 심화과정 교육(연구공동체 병행), 어르신 생활문화전승사업 연구공동체 운영 등의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문화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해당문화원	비고
11년 신규	종량·영도·인천남동·울산남구·광명·광주·안성·연천·강원고성·충주·진천·대전·서천·무주·순창·임실·익산·군위·봉화·청도·성주·경남고성	22개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동대문·종량·영등포·부산강서·부산남구·동구팔공·광주동구·광주서구·울산중구·울산남구·기평·시흥·의정부·평택·포천·화성·홍천·횡성·양구·청원·공주·당진·홍성·고창·김제·전주·정읍·곡성·담양·목포·보성·신안·영광·화순·여수·포항·고령·성주·영주·철곡·김해·합천	42개원
어르신생활문화전승컨설팅트양성	동구팔공·고양·춘천·평창·동해·정선·부안·나주·진도·문경·사천·남해·거창	13개원
컨설팅트양성심화교육	영등포·광주동구·대전중구·대덕·강화·하남·평택·강릉·곡성·구미·김해·서귀포	12개원



서울동물원에서 공연 중인 부산연제문화원 '영브라더스'

연합회 소식_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들, 날개를 펴다

지방문화원 어르신들
서울대공원에서 공연 열어



인터뷰 중인 설기영 영브라더스 단장

‘2011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의 공연이 서울대공원 별빛축제 메인무대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서울대공원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연제·공주·의정부·팔공·영광문화원의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이 참여하였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의 홍보성 제고 및 어르신봉사단의 활동영역 확대를 맞는 중요한 공연이었다. 주말을 맞아 동물원을 찾은 시민의 발길을 붙들어 함께 즐기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각 문화원에서 어르신 및 담당자 100여명이 이룬 8월의 흥겨운 볼거리였다.

공연 문화원 및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일시	문화원	내용	공연시간
1	8/14(일)	연제	색소폰	30분
2	8/20(토)	공주	민요, 연극, 풍물	60분
3	8/21(일)	의정부	현대밴드	40분
4	8/27(토)	팔공	아코디언	30분
5	8/28(일)	영광	창무극	80분



김영웅 부산연제문화원장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중 14일 공연을 맡았던 부산연제문화원

무식하고(?) 용감한 우리는, 부산 연제문화원 영 브라더스!

처음은 그냥 취미생활로 소리 낼 줄도 모르고 시작한 색소폰이었다. 2009년 5월 어르신문화학교 색소폰교실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해 9월, 서울 홍대 앞에서 99절(9월9일:99세까지 건강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제정한 제1회 기념일) 문화의거리공연이 있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한 초보들이 겁도 없이 무대에 올랐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무대를 목표로 한 연습이라 4개월 동안 하루 6~7시간씩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관객 중 프로연주자가 있었다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관객 호응이 좋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색소폰 연주가 2년여 동안 ‘은빛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우나 노인복지시설 또는 다문화가정 위문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공연을 다니기 위해서는 주말도 없이 매일 문화원에 나와서 연습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보니 문화원의 다른 회원들께 누를 끼치지 않았나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한다. 문화원에 수업이 많아서 빈 교실이 없는 날이면 야외에 한적한 곳을 눈여겨두었다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연습을 다니곤 했다. 그렇게 2년여를 열심히 색소폰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고 노인문화학교 색소폰교실을 졸업할 즈음에 운 좋게도 문화원원장님과 뜻이 맞아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주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김영웅 원장님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어주시고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도와주

셔서 2011년 5월 1일 ‘연제문화원 [영브라더스사업단]’이라는 (예비)사회적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구성단원 총 10명, 영브라더스에서 색소폰 연주를 제2의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사업단을 가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갓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기저기 입소문을 들으시고 크고 작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제법 수익도 늘러가고 있다. 지하 철역 무료공연에서는 언제 또 오라는 시민들의 반가운 재촉도 있으셨다. 송도해수욕장에서 열었던 작은음악회에서는 지금까지 왔던 공연단 중에 제일 잘한 팀이라는 칭찬도 받아 절로 어깨가 으쓱해졌다.

공연을 다니다보면 타이밍이 좋지 않아 관객이 채 들어오지도 않은 객석을 색소폰소리로 채울 때도 있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라 너무 집중되어서 긴장될 때도 있다. 하지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더욱 더 좋은 소리로 가꾸어 ‘영 브라더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설기영 영브라더스 단장

딩동, 반갑습니다

폐교, 아트센터로 거듭나다!

강릉문화원 예맥아트센터

폐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으로 올라간다. 당시 도시집중화와 탈 농촌화 현상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폐교를 양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임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폐교 운영은 임대료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관리운영비의 부담과, 시설의 노후화, 수요 예측의 오류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매입이 아닌 임대로 인한 투자의 어려움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폐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급속하게 훼손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당시 이 같은 폐교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강릉문화원이 전국 문화원 중 최초로 자체 소유의 독립원사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원의 사업과 활동영역을 지역문화 전반에 걸쳐 확대해 나가며 문화원의 역할을 강화시켜나갔다. 그러면서 나는 막연하게나마 폐교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폐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사이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 잡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예맥아트센터로 개발한 강릉시 왕산면의 왕산초등학교 목계분교였다.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는 규모인데, 이곳은 교실 세 칸 반을 가지고 있는 239㎡의 교사동과 60㎡ 가량의 관사동,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운동장과 학교 뒤편의 여유 공간 등 너무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아 향후 개발과 관리 운영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는 입지조건이었다. 강릉 시내에서 20km거리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고도가 높고 청정하여 최적의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구불구불한 길을 대신할 터널이 공사 중이어서 완공되면 거리와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센터 앞을 지나는 강릉-정선 간 국도도 4차선으로 확·포장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은 바로 폐교와 마을과의 관계인데 폐교는 지역 주민들의 모교인 경우가 많고 또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곳으로 지역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에 폐교를 활용함에 있어 지역민들과의 상생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목계 분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단절되었고, 결국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서 주민 대부분이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강릉문화원이 이곳을 개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나타내 주었기에 향후 개발과 정에서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이곳은 내가 생각하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기에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2006년 강릉 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강릉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게 되면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목계 분교의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2007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5조 2항에 근거하여 강릉교육지원청에 목계분교 대부를 위한 업무협조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회신 결과 이곳이 현재 이전 임대자와 교육청간의 소송 중인 관계로 협의의 보류가 통지되었다. 하는 수 없이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2008년 6월 소송종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폐교 임대 의뢰를 신청하였고 드디어 교육청으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부허가를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매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폐교의 매각은 지역 시·군교육지원청이 아닌 시·도교육청의 관할로 강원도의 경우 도교육위원회의 승인과 교육감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먼저 교육청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목계분교 개발을 위한 매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각 요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오랜 시간의 준비와 노력이 들어간 결과였을까! 이렇게 제출한 목계분교 매각 요청서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하였고, 그해 연말 매각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매입과정에서 교육청이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이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산정되었다. 더욱이 이 금액은 강릉문화원이 매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자칫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물 뿐 아니라 부지 내의 모든 식수(植樹)와 허물어진 담장, 심지어 학교 뒤편의 무너져 내린 석축에까지 금액이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 불가능한 구조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인접한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관사동 건물에 대하여서는 역으로 사용불가능을 이유로 매각 전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와 반대요청을 통해 결국 교사동 건물에 대한 금액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매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처럼 긴 시간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 목계분교를 매입한

이후 다음의 과정은 바로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였다. 강릉 문화원의 자체 예산으로는 폐교를 개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방법은 강원도와 강릉시로부터 사업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충실한 사업계획과 사전 협의 그리고 예산 편성 일정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 신청을 진행하던 연초에 미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관련부서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예맥아트센터의 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부허가를 받자마자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예산확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비예산이 확정되면 매칭 펀드를 통해 같은 금액만큼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기에 도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예산에 도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시비 1억5천만 원이 더해져 총3억 원의 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을 확보한 2009년 본격적인 예맥아트센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또한 쉽지만은 않았다. 건물 자체가 워낙 낡고 노후되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낫다는 의견과 기존 시설을 최대한 살리는 리모델링이 낫다는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를 결정해야 했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을 대입을 해 보았다. 먼저 원형의 가치문제였다. 폐교는 비록 학교로서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학교라는 원형의 존재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교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가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는 공간의 효율성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 용도를 고려한 신축이 효과적이라는데 이의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차별성의 문제였다. 폐교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화려하며 고급스런 시설을 갖춘 수많은 시설들과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



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신축보다 학교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과의 관계였다.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곳 목계리 역시 주민의 상당수가 폐교 이전의 목계분교를 다니고 졸업했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주민 대부분이 학교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대부분이 옛 모습을 보존해 주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전제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신축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와 차별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민들과의 관계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나은 방법이라고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결정한 뒤 설계 과정에서부터 시공까지 건물은 물론 학교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기존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지어는 너무 오래된 탓에 시멘트가 다 부식되어 버린 운동장의 동상도 보수를 통해 살려 내었다.

드디어 2009년 11월 10일 마을 주민들과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예맥아트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는데, 이날 축하를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께서 이곳을 둘러보시고는 매우 흡족해 하며 “시는 왜 30억 원을 쓰고도 이렇게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조 섞인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인지 2010년에 다시 시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1억 원 가량의 문화원 예산을 보태어 숙박 시설 2개동과 식당 및 운동장 잔디식재와 주변 환경개선, 각종 공연과 무대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1년 상반기에 예맥아트센터 조성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의 문제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졌다. 지금

까지의 모든 노력은 결국 앞으로의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이었으며, 지금부터 이곳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곧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 예맥아트센터에서는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솔향녹색학교>사업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된 “강원도 내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워크숍”, “강원도 다문화센터 종사자 워크숍”,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유산 방문교육 강사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교사직무연수”, 국악예술강사 연수, 문화콘텐츠기획자워크숍 등이 예정되어 있고 9월과 10월 중에는 공연무대와 산골 작은 음악회도 기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솔향녹색학교>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산림청녹색사업으로 유·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과 숲체험, 주먹밥 만들기 체험 등을 함께하는 “그린에코키즈스쿨”, 녹색체험과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한 “숲속연극놀이교실”, 주부들을 대상으로 줄인형을 만들고 조종법과 인형극을 만들어 보는 “에코맘 프로젝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숲속여름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60여회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 조성된 예맥아트센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센터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캠프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사용 신청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7월과 8월은 비어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예맥아트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폐교가 이름처럼 아트센터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문화로 함께 나아가는 꿈을 펼쳐 보고자 한다.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실장



문화원 사무국장 릴레이

필리핀 마닐라 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사실

충북지회 해외연수

2011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3박5일의 일정으로 충청북도 12개 시, 군 문화원 사무국장 연수가 아시아의 진주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 되었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수적으로 마닐라 주변의 관광지인 팍상한폭포, 따가이따이화산, 히든벨리, 인트라무로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필리핀 마닐라 연수는 나에게서는 두 번째의 방문이다. 지난 2007년 다니던 전 직장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해외시장 개척 및 확장 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방문 목적은 지금과는 상이하였기 때문에 짧은 순간순간 보고 느낀 것이 필리핀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며, 출장 중 내가 느낀 필리핀은 사진 속에서 본 우리나라의 1960년대 초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번 정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외본다 하더라도 두 번 이상 와보고 싶지 않은 곳이었기에 이번 연수가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였으리라.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이곳의 문화와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간 느끼지 못했던 현지인들의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름 강한 국민성, 역사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군맹무상(群盲撫象)의 오류와 부화뇌동(附和雷同)의 부끄러움을 반성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문화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521년 지동설을 입증하기 위해 포르투갈의 탐험가 마젤란은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여 지금의 필리핀 세부 섬에 상륙하면서 이곳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스페인의 본격적인 식민통치가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지금의 국명은 16세기 중엽 필리핀에 파견된 탐험가 빌라로보스(Villalobos)가 황태자 필립의 이름을 따서 'Las Lelas Filipinas' 즉 필립에게 바친다. 라는 뜻으로 지금의 필리핀이 불려 지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의 필리핀은 여러 개의 부족국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강한 스페인 군대의 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수치스런 300여 년의 식민통치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통치는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스페인의 종교는 정통 로마 가톨릭이 국교로 정해져 있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 신봉하였던 터라 당연히 이곳 필리핀에도 가톨릭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다. 그래서 인지 이곳 필리핀 국민의 85% 이상이 현재 가톨릭 신자들이며, 어디를 가나 성당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방문한 대표적 유적지인 인트라무로스 내부에도 1571년에 세워져 아직까지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성 오거스틴 성당이 있다. 이 성 오거스틴 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기적적으로 아무런 외상을 입지 않았으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1993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성당으로 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이 찾는 성당으로도 유명하다.

인트라무로스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마닐라 대성당, 성 오거스틴 성당, 산티아고 요새 등이며 산티아고 요새는 과거 스페인 군대의 방어요새의 거점으로 설계되었고 필리핀의 독립투사이자 영웅인 호세 리잘(Jose, Rizal)이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요새 안에는 이밖에도 다수의 정치범이 투옥되어 있던 지하 감옥이 있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의 처절한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지하 감옥은 파식 강 쪽의 수문을 열면 밀물 때는 감옥의 천장까지 강물이 들어와 한 번에 몇 백 명씩 처형한 후 수문을 열어 시체가 강 쪽으로 흘러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군 점령기에도 수많은 필리핀인들이 이곳에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하다. 호세 리잘(Jose, Rizal)에 대해서는 리잘공원에 대해 언급할 때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다.

필리핀 마닐라 주변의 관광지를 짧은 3~4일 정도에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문한 곳을 위주로 소개해볼까 한다.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활발한 지각변동이 거듭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질은 변화가 많고 커다란 단층대가 지나고 있으며, 지진과 화산활동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7,000개가 넘는 섬들의 생성과정에서 습곡이 발달하였는데 우리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 '팍상한 폭포'도 이 과정 중에 생겨난 곳이다. 팍상한 폭포는 필리핀 루손섬 남부 라구나주 카빈티의 카빈티강에 있는 폭포로 높이는 약 91m 라고 한다. 보통 일반적인 폭포의 특징은 정상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이 팍상한 폭포는 계곡의 중간에서 황토색의 물줄기를 쉼 없이 뿜어낸다. 팍상한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팍상한타운에서 2명 1개조로 현지인들이 운전하는 카누를 탄다. 카누를 타고 처음에는 강가를 서서히 노를 저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좁은 협곡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부터는 배를 사람의 힘으로 끌고 올라간다. 그러다가 큰 바위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카누를 통째로 들고 올라가기도 한다. 협곡과 정글을 지나면

바로 웅장한 소리와 함께 높은 절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가 나오는데 정상에 있는 폭포 밑을 대나무 뗏목으로 이동 폭포수를 맞는 체험을 한다. 최근 들어 필리핀 주요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지 이곳의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을 '물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가이드도 이곳을 설명함에 있어 한국인들이 많이 찾다보니 관광객을 나르는 현지인들은 웬만한 한국어는 기본이고 관광객들의 팁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힐리웃액션'이 프로 배우 급이다. 그들에게 "형님, 사장님, 어머니 만원."이라는 단어는 배를 타고 오르고 내리는 그 시간동안 기본 2~3번은 듣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따알화산은 최근 다시 이곳은 화산경보가 발령되어 현지인들에게는 대피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관광객들의 입장도 통제된 상태라 우리는 애석하게도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가 방문한 마닐라의 관광 명소 중 그래도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히든벨리를 추천한다. 히든벨리(Hidden Valley)란 말 그대로 '숨겨진 계곡'으로 필리핀 전 대통령의 가족 휴양지로 개발된 온천 계곡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청남대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히든벨리는 마닐라 근교 열대 정글 속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천연온천이다. 히든벨리 입구에 도착하여 울창한 코코넛 정원을 지나 한 10여 분 정도 계곡을 오르다보면 소다풀, 삼페인풀, 러브풀 등의 테마를 가진 노천 온천이 나온다. 이 온천수는 물 온도가 아주 뜨거운 것이 아닌 미지근할 정도의 100% 계곡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천연온천수로 수질이 최상이어서 피부미용 및 관광으로 지친 몸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고 한다.

이곳은 온천욕뿐만 아니라 트래킹 또한 즐길 수 있는데 작은 폭포 쪽을 향해 10분 정도 오르다 보면 열대나라이에서만 서식하는 거대한 나무를 볼 수가 있으며, 울창한 열대 정글의 다양한 식물들과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팍상한 폭포, 따까이따이, 히든벨리 등이 필리핀 마닐라의 보고 즐기는 관광코스라면 리잘공원은 필리핀인의 국민의식과 역사의식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이고 정신적 장소라 할 수 있다. 리잘공원은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잘(Jose Rizal)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원이다. 필리핀 국민의 독립 영웅인 호세 리잘(Jose Rizal)은 시인, 소설가이자 의사이며 스페인의 지배에 저항하다 35세의 나이에 처형당한 독립운동가이다.

처형될 당시 호세리잘은 죽으면서까지 스페인의 군대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하여 뒤돌아서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들에게 호세리잘이 사형당한 장소와 조형물로 만

1

2



들어 놓은 곳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리잘공원은 마닐라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마닐라 최대 관광지구 에르미타(Ermita)와 가깝고 북쪽에 위치한 인트라무로스 까지도 걸어 갈 수 있다. 호세리잘 동상은 이 공원의 상징물이며 그 동상 아래에 호셀리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그 동상 앞에는 필리핀의 해병대들이 24시간 초소를 서고 있다. 이 해병대들은 2명씩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도 절대 흐트러짐 없이 그들의 영웅을 지키고 있다.

호세리잘 동상에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호세리잘이 사형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 조국 필리핀을 위해 남긴 시 '나의 마지막 고별(Mi Ultimo Adios)' 이 세계 주요 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한글로도 1996년 민용태 교수가 번역하여 인트라무로스 산티아고 요새에 있는 리잘기념관 2층에 동판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나의 마지막 고별

호세리잘(Jose Rizal)

잘있거라 내 사랑하는 조국이며

태양이 감싸주는 동방의 진주여

잃어버린 에덴이며

나의 슬프고 눈물진 이 생명을

너를 위해 바치리니

이제 내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너 위해 즐겁게 바치리니

(중략)

잘있거라 서러움 남아있는

나의 조국이며

사랑하는 여인이며

어릴 적 친구들이여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안식예

감사하노라. 잘있거라

내게 다정했던 나그네여

즐거움 함께했던 친구들이여

잘있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아 죽음은 곧 안식이니...

이 곳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많은 외세 침략에 의해 참으로 고난과 한이 많은 나라라고 한다. 식민 지배를 당하는 약소국의 지식인으로 힘없고 나약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고 개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이 있었겠는가? 하지만 필리핀은 지난 과거의 슬픈 역사를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 과목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한다. 각 학교마다 '리잘'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으며,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나 학년의 진출이 좌절된다 하니 경제력의

첫대에 감춰져 후진국이라는 도매 값에 넘겨진 이 나라의 모든 평가가 한순간에 경외심으로 바뀌게 된다.

언제쯤이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자들도 입시위주의 학업경쟁에서 벗어나 진정 소중한 것들에 대해 잊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역사의 아픔에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기가 올지 참으로 뒷맛이 씁쓸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분명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리핀 연수 과정 중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비쳐졌던 풍경은 할 일이 없어 마을 입구에 무리를 지어 앉아 있는 청년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여자와 아기들, 옛날 우리나라의 시골에서나 볼직한 어설픈 구멍가게에서 불량식품 막대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들의 대다수는 우울증환자이거나 비관적인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 모습에서는 웃음이 있었고 행복이 보였다. 필리핀은 4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에메랄드 빛 바다이고 둘째는 맑고 푸른 하늘이며 셋째는 하얀 캔버스에 옮겨놓은 듯한 일몰(Sun Set), 넷째는 해맑은 아이들의 눈망울이라고 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공식화하여 이것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는 현실이 애석할 따름이다.

대부분 단체들의 해외문화 탐방은 과거의 역사, 문화적으로 화려했던 그 당시의 부산물을 보러 가거나 현재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을 리드하는 문화현상을 보러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필리핀은 지난 수백 년간 여러 이민족의 식민통치를 받은 슬픈 역사로 인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한 그들만의 내세울 전통문화도 기록유산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말처럼 국민적 관심과 실천이 따른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이 나라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내 나름대로도 분명 이번 연수가 자아성찰의 계기와 보이지 않는 결실이 있음을 느낀다.

추연집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북도지회 사무처장
우리문화 객원기자

1.성 오거스틴 대성당
-건축연도는 1587년부터 시작하여 1607년에 완공되었다. 자그마치 400여 년이 넘는 건물로 지금도 여전히 신도와 관광객들이 찾아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관람을 한다.

2.인트라무로스 입구



1



2

작은 시골동네를 대표하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이수자강사파견, 동아리활성화사업’을 소개하며

함양에는 두 번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 이수자강사파견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중략〉.....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무렵 자기 집 마당을 쓸었을 뿐인데 지구의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다고... 꽃 한 송이 피었을 뿐인데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다고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에서 일을 시작하며 세상은 개인들의 작은 행동과 마음의 움직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마당을 쓸고,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2개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또한 작은 생각들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과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요즘입니다.

함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이수자강사파견 사업과 동아리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수자강사파견은 어르신문

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운영하는 문화원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법한 ‘함양에는 두 번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는 사업명 아래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손뜨개 작품을 제작하여 완성 작품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어르신간의 재능 기부 사업입니다.

일 년의 반 이상을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지만 손뜨개를 떠올리면 겨울, 크리스마스와 연관되는 이미지에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고민한 끝에 8월의 크리스마스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어의 장단점을 모두 살린 것이지요. 어른이든 아이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 좋아지는 것을 연상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은 하루하루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 년에 딱 두 번...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깜짝 선물로 인해 마음속에 꽃 한 송이 피울 씨앗을 뿌리는 일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원에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 과정을 간략하게 표(우측 상단)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년차 사업까지는 어르신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면, 3년차 사업에서는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의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외롭게 여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완성한 작품을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8월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선물을 전달하고자 기획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의 크리스마스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하여 몽골 신생아들에게 모자보다 더 크고 따뜻한 함양 할머니들과 아이들의 마음으로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조카담요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애들아-할머니랑 '아따' 하자! - 동아리 활성화 사업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애들아-할머니랑 '아따' 하자!」라는 사업명 아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따'라는 단어는 순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 한국무용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인 부채춤

함양에는 두 번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발차취

진행시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구분	특 정
2009년(1년차)	어르신문화학교	문화원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와서 수업을 진행함. 1차 수혜대상을 참여 어르신, 2차 수혜대상은 지역 소외계층 아동(다문화, 저소득층 아동)
2010년(2년차)	전문강사파견 (지역 노모당, 면단위 요양원, 노인대학)	손뜨개 전문 강사와 전년도 사업참여 어르신을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1차 수혜자 참여 어르신, 2차 수혜자 지역 저소득층 아동(다문화, 저소득층) 및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한 아프리카 신생아
2011년(3년차)	이수자강사파견(위성초등학교)	그동안 사업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어르신을 이수자 강사로 활용하여 지역 초등학교 특별활동시간에 손뜨개 교실개설, 1차수혜자 참여 어르신, 2차 수혜자 손뜨개교실 아동, 3차 수혜자 지역 독거노인 및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한 몽골 신생아

을 연습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동아리활성화 사업은 일주일에 한번 한국 무용반 어르신과 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나 부채춤 공연을 준비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위도 잊은 채 스무 살 이상의 나이 차이도 극복하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드디어 '아띠 무용단'은 지난 7월 30일 제8회 산삼축제에서 지역민과 많은 관광객을 위해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본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그동안 연습한 동작들을 하나하나 선보이는 모습에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9월에 열리는 물레방아축제, 위림초등학교 학예발표회 등에서도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지 않은 연습 시간에도 어르신과 아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할머니는 아이들의 땀을 닦아주고, 아이들은 할머니들을 위해 시원한 물 한잔을 나눠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담당자로서 두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또다시 농사일 하느라 정신없는 어르신들과, 문화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즐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문화의 열매가 열리는 날까지...

김혜진 함양문화원 과장



〈이수자강사파견-함양에는 두 번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1. 이수자 할머니께 뜨개질을 배우고 있는 손뜨개 교실의 유일한 남학생
2. 할머니들은 어떻게 뜨개질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
3. 본인의 고국이기도한 몽골 이주여성(이수자 강사)께 고국의 신생아에게 전해질 조각담요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4. 오픈강좌를 통해 완성한 조각.. 50개의 조각이 모여 하나의 담요가 완성된다.



〈동아리활성화사업 - 애들아~할머니랑 "아띠" 하자!〉

5. 주말에도 부채춤 연습을 하고자 어르신들에게 부탁하는 이쁜 아이들
6. 그간의 힘들었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무대도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외치는 아이들과 어르신
7. 순서하나 틀리지 않고 활짝 핀 꽃을 선보이는 "아띠 무용단"

도심 속에서 신뜻하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회



오케스트라 무대에선 정찬경씨



오래전부터 예향이라 불 리는 광주(光州).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세워지
고 있음은 물론 미술부문에서 비엔
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교대로 매년 열리고 있고 문
학, 음악, 건축, 국악, 사진 등 예술의 모든 장르와 문화 전반
에 걸쳐 도약을 준비하느라 도시가 온통 부산하다. 그러나
광주의 여건은 열악하다. 세계적인 뮤지컬이나 오페라공연
단이 한반도에 상륙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갈
뿐, 광주는 회피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정작 광주시민
은 세계적 수준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문화향유권을 일부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15세기 유럽에 르네상스라는 들불을
지르고 다녔던 불꾸러미는 피렌체의 대부호 메디치(Medici)
가문의 금고에서 나왔는데……

관람문화와 마당문화

사실 클래식은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
는 우리 전통 음악과 크게 다르다. 서양음악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네 살 적부터 연주와 작곡을 했듯이 어려서부터

집중교육을 받은 전문엘리트들에 의해 작곡, 연주되고 청
중은 객석에 앉아서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관람문화이
다. 그래서 격식 있고 엄숙한 고급 레스토랑처럼 엄숙한 분
위기에서 감상을 강요(?)당한다. 반면 우리는 원래 집안이나
마당, 장터 같은 좁은 곳에서 악사와 청중이 함께 호흡하고
어깨춤 추며 어우러지는 분위기에 익숙한 민족이다. 그런
마당문화의 유전인자가 오늘날의 '케이 팝(K. Pop)'으로 진
화해서 지구촌으로 번지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연세대학교에서 성악과를 졸업한 뒤 이
탈리아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돌아온 역량 있는 바리톤
가수 정찬경(광주대, 호남신학대 겸임교수)씨는 광주가 진
정한 문화도시로 우뚝 서려면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끌
리는 문화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화하
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반적으
로 멀고 어렵게만 느끼는 클래식을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어우러지기로 결심한 그는 벌써
6년 전부터 '광장음악회'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광장음악회는 열린 콘서트로 무료입장이다. 국내외에서 열

정적인 활동을 통해 기량을 인정받은 음악인들이 꾸미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매월(셋째주 토요일) 한 차례씩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그 무대는 시내 한가운데 조성된 도심 속 녹색섬터 금남근린공원에 반지하화된 비교적 아늑한 '바당'이다.

이곳에선 클래식이 거추장스런 격식의 옷을 벗는다. 손을 맞잡고 데이트 중인 청춘과 유모차를 밀고 가던 주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지하철을 타려던 행인들을 끌어들이며 잠시 클래식 감미로운 선율에 취하게 만든다.

남다른 열정을 가진 정찬경(65세)씨는 「광장음악회」상설 연주회 외에도 오페라무대의 주요 배역을 맡기도 하고 시민들과 클래식을 공유하기 위해 미술관음악회, 농어촌, 교정시설, 다문화 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행복을 배달하는 「음악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최고급의 성악가교수들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 밝은 빛을 찾아 나아가려는 어린이들을 위하여「엔젤합창단」음악지도까지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꿈꾸는 예술」이라는 공익 클래식 단체도 결성해서 이끌어 가고 있다. 유명 성악가와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동요로부터 가곡, 가요, 뮤지컬, 오페라, 세계민속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재미있는 클래식'을 지향하고 있고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드럼 등으로 편성된 뮤직스타팀은 클래식은 물론 재즈, 제3세계음악, 퓨전음악 등을 독특한 앙상블로 선보이고 있다.



광장음악회



뮤지컬 무대에서



광장음악회

길거리 음식처럼 클래식을

인간은 '사는 데' 목적이 있는 동물과 달리 '잘 사는 데', 아니 '보다 더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간은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향상을 통해 보다 더 잘 살아가려고 공동체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런 노력이 누대에 걸쳐서 쌓아지다 보니 문화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문화는 마땅히 공동체가 고르게 공유하고 함께 누려야 한다.

고상하게만 느껴지는 클래식도 문화의 한 축인 바에야 일반 시민도 함께 해야만 그 지평을 더욱 넓힐 수 있다. 클래식을 높은 무대로부터 끌어내려 일반시민들에게 찾아가서 호흡을 함께 하고 어울리려는 그의 노력이 문화도시 광주의 그리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서는 매우 유효하고 적절하며 매우 아름다운 시도로 보인다. 고급 레스토랑에 찾아가야만 맛 볼 수 있는 맛난 고급음식을 오면가면 음미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조리해내면 서 흘리는 그의 땀이 문화광주의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백중절에 펼쳐지는 남원 “삼동(三童)굿 놀이”

살아 3번은 봐야 한다네요!

남원문화원



너는 삼동굿을 몇 번 보았느냐

남원은 삼동(三童)굿과 관련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구전 설화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가면 염라대왕은 “너는 삼동굿을 몇 번 보았느냐?”고 물어서 세 번 이상 보았다면 극락세계로 보내고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면 “너는 그렇게 좋은 굿을 못보고 살았으니 죄를 많이 지은 몸이구나”하여 지옥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만큼 삼동굿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토 민속놀이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삼동굿은 이곳 보절면 괴양리에 터를 잡고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임진왜란 이후 광주 안씨(廣州安氏), 언양 김씨(彦陽金氏), 은진 송씨(恩津宋氏)의 3성(三姓)반이가 양촌마을에 터를 잡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마을이 형성되면서 오랜 시간동안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로 매년 백중절(百中節: 음력 7월15일)을 맞아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에 속한 자연마을 양촌(陽村), 음촌(陰村), 개신(開新) 3개의 각성촌을 이룬 마을이 공동으로 진행되는 마을굿이다.

괴양리의 양촌, 음촌, 개신마을 두레꾼들이 각 마을 입구에 모여 어름굿을 시작으로 마을 작은 당산에서 당산제를 올리고 나서 용기(龍旗)·농기(農旗)·영기(令旗)를 앞세우고 각 마을로 갈라지는 삼거리로 나가 예를 갖추고 기세배(旗歲拜)와 술멕이, 합굿을 펼친다.

풍물패는 다시 제물이 차려진 큰 당산에서 당산제를 올리는데 강신례, 참신, 헌작하고 독축과 소지, 고시래, 음복(飮福)순으로 마을의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면 풍물패가 한바탕 흥겨운 놀이판을 펼치고, 이어 마을 우물로 이동하여 샘굿과 지신밟기 등으로 이어진다.

삼동서기와 지네밟기

기세배와 당산제, 샘굿, 지신밟기가 끝나면 휴식을 가진 후 이곳 남원 보절면 괴양리에서만 볼 수 있는 삼동굿이 펼쳐지는데 세 아이(三童)의 출산과정과 임신·출세 과정을 그린 삼동서기와 지역의 풍수에 따라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한 지네밟기가 펼쳐진다.

삼동(三童)서기는 3명의 부녀자가 삼시랑상을 가지고 입장하여 금줄을 중심으로 손을 비비며 아이의 출산을 기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출산 기원이 끝나고 산모 역할을 담당하는 다섯 명의 마을사람을 한 조로 하여 세 팀이 3층으로 탑을 쌓고 각 마을에서 선발된 아이를 무덤에 태워 출산의 과정을 연출하는데 산모 어깨를 딛고 선 아이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반대로 돌려세우기를 반복하다 아이가 산모의 가랑이 사이로 나오는데 이는 순산을 의미하고 있으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탄생의 기쁨을 나타낸다.

이어서 성장과정으로 아이를 옆으로 눕혀 젖먹이는 시늉과 등에 업고 산모 어깨위에 서서 춤을 추는 행위를 통해 성장과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임신·출세 과정으로 한 아이에게는 무관을 상징하는 군무를 썩우고 또 한 아이에게는 과거급제를 상징하는 어사화를 또 다른 아이에게는 문관을 상징하는 갓을 썩우고 출세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네밟기는 세 마을의 부녀자들이 한 줄로 엮드려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길게 늘어서 S자를 그리며 마치 지네가 기어가는 것처럼 휘젓고 다니면 닭 벼슬을 한 장정이 양쪽에

서 동자들을 보좌하며 문관, 무관, 선비 순으로 지네의 등을 밟으며 앞으로 나간다. 이때 지네밟기 소리를 하여 지네의 기운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삼동굿은 풍수적으로 괴양리는 양촌마을의 주산이 계룡산으로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음촌마을 주산은 길게 뻗은 지네형국 약산으로 닭과 지네는 서로 상극이며 지네가 닭을 공격하여 마을에 일어날 재앙을 예방하고자 하는 풍수비보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지네밟기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설화가 있는데 양촌마을 아래쯤 회산천과 장대봉이 만나는 곳에 영계육진(靈鷲浴塵)이라는 명당이 있는데 그곳에 장(張), 박(朴), 이(李)씨 3성(三姓) 가운데 한 부인이 들어가면 당대에 발복하여 삼정승(三政丞)이 나온다고 알려졌다.

삼동굿은 다른 지역에서 백중절에 풍농을 기원하는 위로연의 의미도 있지만 세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며 농경사회의 대동체로서 설화, 전설, 풍수지리, 농기 등의 다양한 문화를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남원의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민속과 풍수지리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는 민속놀이로 할 수 있다.

김현식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우리문화 남원 객원기자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가지 행사 전통문화체험한마당 경주문화원

주령구 만들기

▶ 경주문화원(원장 손원조)은

지난 8월 12일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장에 맞추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엑스포'를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첨성대옆 동부사적지에서 전통문화체험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전통문화체험한마당은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가지 행사 일환으로 민속연 제작 및 연날리기 체험, 대형줄연날리기, 주령구 놀이, 투호, 제기차기, 전통문양타본, 신라문양 찻잔그리기, 한지공예, 매듭공예, 문화재 만들기 체험, 경주의 옛사진 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연속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난 8월 13일 14일 양일간에는 다양한 연령의 관광객 2000여명이 전통문화체험한마당을 찾아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겼다.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이런 뜻밖의 행사가 열려 반가웠으며 아이들이 침성대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침성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구가 있어 좋았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행사기간 중 투호대회, 제기차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김장호 경주문화원 직원, 우리문화 경주 객원기자

과천향토사료전

「과천의 어제와 오늘」전(展)개최



1. 과천문화원에 가천자료와 수집자료 1만 5천점을 기증한 최중수, 조용기 기증자 내외

“1만 5천여점 기증으로 꽃 피운 과천향토사료전”

- ▷ 전시 기간 | 2011.8.1(월)~9.30(금) 9~18시
- ▷ 장 소 | 과천문화원 3층 기획전시실
- ▷ 전시 주제 | 과천향토사료전 「과천의 어제와 오늘」전(展)
- ▷ 문의 전화 | 02-504-6513 과천문화원

올해 제13회 과천향토사료전은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전 과천문화원장)이 기증한 자료 가운데 「과천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문원동 과천문화원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총 1만 5천여 점의 기증 자료 가운데 과천의 근현대적인 변화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선별하여 50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는 총 4부로 나누어 '제1부 오

래된 과천, 제2부 근현대 과천의 변화, 제3부 개인 가족사, 제4부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오래된 과천'에서는 과천의 전통사회를 각종 고서, 고문서와 박물관 등을 통하여 살피고 있다. 〈조흥첩〉은 『소학(小學)』을 배강하여 합격한 자에게 과천현에서 발급한 문서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문서이다. 그리고 전시된 5점의 조선 후기 호패는 왕족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것으로,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시권(試券)〉은 1839년 초시를 치른 최완식의 과거답안지이다. 그리고 〈율시집〉은 1919년 서당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지은 시편을 모은 필사본으로 근대로 변한 시대적 상황과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서류에는 동몽선습 등의 각종 초



학서와 사서삼경을 선보인다.

‘제2부 근현대 과천의 변화’는 한말에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천의 주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이다. 먼저 뿔나무꾼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과천의 나무꾼과 청계산 식림계의 관계, 그리고 해방과 전쟁통에서, 그리고 1960년대의 재건운동,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과천의 변화상, 서울대공원의 건설과 우리지역의 도시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우리지역 과천의 현대적 변화는 과천향토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집중적인 조명이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3부는 최종수 기증자의 ‘개인/가족사’이다. 기증자의 학창시절과 군대생활, 결혼과 직장생활을 시기순으로 보여주고, 스무살 시절의 일기를 통해 젊은 날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열망과 고뇌를 엿볼 수 있다. 학창시절의 교과관련 노트, 군대생활의 〈추억록〉, 직장의 〈출장 노트〉 등은 개인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아울러 88서울올림픽 자원봉사 관련 자료는 기증자의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며, 가족잡지 〈응달말〉은 그 자체가 가족사로 이해된다.

제4부 컬렉션은 과천향토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최종수 기증자의 자료 수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기류, 서화류, 등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기증자의 컬렉션은 우리 지역 과천의 변화를 기록하겠다는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서울대공원의 건설에 따라 지역의 변화상을 메모, 사진 촬영, 자료 수집 등의 형태를 통하여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다. 기증자료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천의 현대지역사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수 연합회장은 총 3차에 걸쳐 자료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1차로 몇 백 년 동안 집안에 전해 오는 가전 자료 700여 점을 먼

저 기증하고, 2차로는 본인이 평생 동안 모아 온 수집품을 전부 기증하였다. 3차는 2012년 완공 예정인 추사박물관에 추사가 직접 쓴 간찰 등 수십 점의 추사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 향토사료전을 준비한 이정찬 과천향토사연구회 회장은 “과천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는 이번 향토사료전은 과천 지역의 변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많은 시민들의 전시를 관람한다면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데 유익할 것”이라며, “전시중인 생활용구를 포함한 각종 박물관류는 요즘은 보기 드문 생활사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학부모와 초중학교 자녀들이 함께 관람함으로써 가족애와 향토애를 함께 나눌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시 관람을 권유하였다.

배기봉 과천문화원 향토사 담당연구원



문화원 돋보이기

문경문화원

향토역사인물과 함께하는 충효교실 / 문경문화원 2011년 교실 개강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은 여름방학을 맞아, 문경의 교육이 지향하는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문경교육'에 보탬을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가치인 충효사상을 교육하는 '2011 충효교실'을 7월 25일 열었다.

문경 시내 4개 초등학교 4,5,6학년 80명을 추천받아 진행되는 이번 교실의 주제는 '향토역사인물과 함께하는 충효교실'. 문경의 독립운동가 윤강 이강년 선생과 신태식 선생, 박열 열사와 신복면 장수 황씨들의 독립운동가들을 3일간 강의실에서 교육하고, 마지막 4일째에는 이들의 생가, 기념관, 마을,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실의 강사는 이 분야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황용건 향토사연구위원과 안동독립기념관의 한준호, 김지훈 학예연구사가 맡았으며, 수강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학교로 보내 학생들의 방학생활을 학교가 알게 할 예정이다. 현한근 문화원장은 개강 인사에서 '방학생활의 자유로움을 뒤로 하고, 충효교실에 입학한 어린학생들의 선택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고장의 훌륭한 어른들을 본받아 장차 이 나라에 꼭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충효교실' 내내 즐겁고, 알찬 시간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교실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교육지원청이 후원한다.

포천문화원,

반월문화제 시상식 개최

전국 휘호대회 및 반월문화제 우수작품전시도 함께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은 지난 7월 13일 포천여성회관 및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서장원 시장, 김중천 시의회의장, 최승복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



습과장 등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원임원,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반월문화제 시상식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 등 총 5백 40여명의 입상자중 분야별로 차상 및 우수 이상 109명,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18명, 좋은책 읽기 독후감 입상자 14명 등 141명에 대하여 각급기관장이 직접 시상하여 대회의 권위를 높였으며, 포천초등학교가 종합최우수를 차지하여 트로피와 우승기를 받는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이번 대회부터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입상자 비율이 높은 학교에 '문화돋움상'을 신선했어 우수학교를 선발 시상했다. 또한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사생 및 서예, 사진 등 우수작품 113점과 전국휘호대회 입상작품 114점을 함께 전시하여 작품의 우수성과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등 자긍심을 심어 주는 한편 서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만규 포천문화원장은 '이번 제25회 반월문화제에도 많은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제한 후 '수상자 여러분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문화예술에 관한 풍부한 기량과 원대한 꿈을 한층 더 계발하고 승화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장원 포천시장, 김중천 시의회의장,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지역 대표 문화행사인 반월문화제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오늘 입상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했으며, 김영우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포천문화원에서는 이날 제25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집 '반월25호'와 전국 휘호대회 작품집을 발간 배포했으며, 우수작품은 7월 15일까지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전시했다.

어린이 포천설화 동화작가 위촉식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은 7월 15일 포천문화원 2층에서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 어린이 동화작가 위촉식을 관내 참여 교사 및 학생, 관계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규 원장은 '관내 어린이들이 직접 포천설화를 동화집으로 제작함으로써 쉽고 재밌게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郷심을 높이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참가 교사 및 학생 모두 보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

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포천설화 동화집 제작에 참여하는 지도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지도 선생님 위촉장 및 어린이 동화작가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포천설화 동화집 제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 동화집 제작에는 책임지도위원에 김현철 포천노곡초등학교장, 지도선생님에 도평초 박진원 선생님, 왕방초 이준혁 선생님, 이곡초 전영모 선생님, 포천노곡초 박재규 선생님, 포천초 김현숙 선생님의 지도하에 각 학교별 4~6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포천설화 동화집은 어린이들이 직접 동화 내용을 집필하고 삽화를 그려 넣는 작업을 통해 11월 말 책자로 제작되어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문의 : 포천문화원 사무국(532-5015)

동해문화원

러시아 나훗카시 학생대표단

동해문화원 전통예술체험 'Dream program' 운영



동해시와 국제자매도시인 러시아 연해주 나훗카시 학생대표단 16명이 동해문화원을 비롯한 동해시를 지난 7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대표단은 13일 동해문화원을 방문해 세계사물놀이대회 대통령상 수상팀을 지도한 신현정 선생님과로부터 우리 사물놀이에 대한 강의와 직접 악기연주를 체험하고 문화원 시물팀의 특별공연도 관람하는 등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악기와 음악을 전수하기 위한 Dream program에 참여했다.

이번 학생대표단은 망상초등학교를 방문해 한복을 입고 절하기, 투호, 윷놀이, 연날리기 등 우리의 고유민속체험과 신흥 청정마을을 방문해 떡메 만들기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 풍습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했다. 한편 동해문화원 드림프로그램에는 지난2007년부터 일본 쓰루가시 학생대표단을 비롯해, 러시아 나훗카시 학생대표단 등 2011년16명을 포함해 그간 100여명의 해외 청소년들에게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악기와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있다.

함안문화원

전통놀이문화창조 운영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과 함안문화원이 주최하고 함안군과 농어촌희망재단에서 후원하는 청소년전통문화프로그램 '전통놀이문화창조' 개강식을



7월 26일 함안문화원 대공연장에서 가졌다.

함안문화원(원장 조훈래)은 우리관내 초중학생에게 충효예절교육, 한지·짚풀공예, 사물놀이, 시조창, 관내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우리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우리선조들의 예술 감성과 지혜를 알게 하고 지역의 파수꾼으로 향토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평창문화원

찾아기는 향토사 생생교육 현장답사



평창문화원(원장 고창식)은 2011. 7. 13, 수요일 찾아기는 향토사 생생교육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진부고등학교 1학년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부 오대산 월정사 8각9층 석탑과 성보박물관을 답사하며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고, 오후에는 봉평의 율곡이이 선생의 양태자인 판관대와 양사언이 풍경을 즐기며 샘이 깊은 우물을 파 주변의 바위 여덟 군데에 글귀를 써 놓은 팔석정을 답사하고, 마지막으로 가산 이효석 선생의 일대기와 작품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효석문학관을 답사하였다. 학생들은 가까이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아 몰랐던 문화재와 문화유적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한다.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한국인의밥상' 촬영



평창문화원(원장 고창식)의 2011 어르신생활문화전승 '산촌음식으로 풀어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을 취재하고자 KBS1 한국인의 밥상 팀에서 촬영을 왔다. 2011년 7월 19일부터 일주일 정도 도사리 마을회관에서 감자를 직접 캐는 것부터 요리하기까지의 과정을 취재하고, 음식은 직접 감자를 갈아 시원한 육수를 넣어 만든 감자국수와 태국의 파생느아, 중국의 뜨산시엔의 감자음식을 취재했다. 이 방송은 지난 8월 4일 오후 7시30분부터 KBS1 한국인의 밥상에 방송되었다.

과천문화원

서울대공원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식 체결



과천문화원(원장 이영구)과 서울대공원(원장 이원호)은 지난 5월 6일(금) 서울대공원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의 인프라를 접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통문화 공연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원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나이가 서울대공원 조성 전 막거리 역사에 대한 재조명 및 자료집 발간, 전통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볼거리 기획 및 전시 등을 통해 과천을 찾는 관람객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대공원은 문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공원 내의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람객 대상 홍보를 지원하여 문화원과 함께 성공적인 문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과천문화원은 대공원의 이미지 및 관람객들에 맞는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와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식은 우리 지역 과천에서 인간과 동물, 지역과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에 과천문화원에서는 이영구 원장, 최중수 명예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서울대공원에서는 이원호 원장, 동물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의 전통문화가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제공될으로써, 과천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 무동담고돌이 서울대공원 아간개장 기념공연

지난 7월 17일(일) 오후 6시에 무동담고돌이 서울대공원 아간개장 기념공연이 있었다.

홍천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 봉사단 인기 대박



홍천문화원(원장 허기영)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 나눔 봉사단의 활동이 가는 곳마다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1천여만원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원받아 외롭고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연형 프로그램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과 갈채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주공1차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열린 공연에서도 '홍천 너브네 문화 나눔 봉사단'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용북 노인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같이 참여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다.

성남문화원

제20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7월 9일, 성남시청 분수대 광장에서 제20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이자 전국문화인물인강정일당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부로 나뉘어 산문과 운문에 참여했다. 성남문화원이 매년 주최하는 이 행

시는 금년이 20번째로, 성남과 관련된 주제 선정으로 애항심 고취 및 문화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제고하고, 일회성이 아닌 전통 있는 성남 지역의 글짓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학생 및 성남시민 27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당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60명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있을 <제14회, 강정일당 상> 시상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성남지역, 3·1운동 선양 학술세미나’ 개최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성남지역, 3·1운동 선양 학술세미나’를 지난 8. 19(금) 오전 10시 30분, 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부설)성남 3·1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굳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한춘섭 원장의 ‘성남 3·1운동 기념사업의 회고’ 기조발표에 이어, 윤중준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위원의 ‘독립운동에서 성남지역과 인접지역의 연합 전개’, 한동역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의 ‘성남 독립운동의 미래지향적 가치’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이용위 광복회 성남지회장과 서중철 성남문화해설사회 회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최근 일본에서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등의 영유권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80여명의 많은 참석자들이 모여 우리 고장 및 국가의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선양하고, 역사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자리였다.

강동문화원

제8기 강동문화대학 수강신청 -선학순 70명 접수-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에서 주최하고 있는 제8기 강동문화대학은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총13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제8기 강동문화대학 역시 일상의 평화로움을 통해 새롭게 역사·문화, 미술, 음악, 교양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강생 모두에게 일상적인 가치의 삶과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고 표출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역사·문학분야에서는 과거 우리역사에서 리더십의 교훈이 될 만한 국왕들의 사례를 김기홍 건국대교수, 가슴속 겹겹이 쌓아둔 얘기를 시로 풀어낸 유

안진 시인·서울대명예교수, 숲 향기 맡으며 문향을 펼치는 김지연 소설가의 강의를 듣게 된다.

미술분야에서는 옛 화가들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현재의 사진과 비교분석하여 해석하는 이태조 명지대 교수, 현대미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기혜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의 강의를 듣게 된다. 음악분야에서는 선이 굵고 맑은 남도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신영희 명창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작곡가들의 생활 뒷얘기도 함께 듣게 되는 김갑수 음악평론가, 음악이론과 아름다운 가곡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이명옥 성악가의 강의를 듣게 된다.

교양분야에서는 오성삼 건국대교수의 교육을 통한 ‘희망찾기’, 양형인 경희대학교 교수의 ‘류머티스 관절염의 치료법과 예방법’, 이영란 경희대학교 연극과 교수 ‘내 삶도 주인공으로 연기하라’는 몸의 언어를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강의를 통해 듣게 된다. 강동문화대학 강사들의 관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신선하면서도 격조있는 내용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유적 답사로는 안동 하회마을로 갈 예정이며, 미술관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제8기 문화대학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8월 31일까지 선학순(70명) 강동문화원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동문화원 ☎02-488-0386, 02-480-1359)

동두천문화원

제26회 소요단풍문화제 기념 2011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안내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위치한 소요산은 경기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저온 수도 권 최고의 명산으로 시에서는 매년 이곳을 중심으로 소요단풍문화제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소요산에는 예로부터 신라고승인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뜻한 설화가 스며있는 요석 공주별궁지와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자재암, 조선 초기 이태조가 별궁을 짓고 자했다는 행궁지등 많은 역사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제26회째를 맞는 소요단풍문화제를 기념하여 소요산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사업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1. 공모전 개요

공모명 | 소요산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공모기간 | 2011. 8. 1(월) - 10. 28(금)

대 상 | 대한민국 국민(출품수 제한없음, 공동 출품가능)

주 최 | 동두천시

주 관 | 동두천문화원

II. 공모내용

1. 공모주제

- 소오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 향토문화유산, 설화(신화, 전설, 민담), 자연생태자원 생활풍습, 문화콘텐츠, 특산품 등을 소재로 활용한 스토리
 - 소오산과 관련된 유·무형 자원을 소재로 동두천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창작 테마 스토리
 - 동두천시와 소오산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문화체육과(031-860-2063)와 동두천문화원(031-865-2923)에 문의 요망.

광양문화원

2011 광양 관광문화 스토리텔링 전국 공모사업 공고

유구한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광양의 설화, 인물, 민속, 구비전승, 테마가 있는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관광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1 광양 관광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을 전국에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공모개요

공모명 | 2011 광양 관광문화 스토리텔링 전국 공모사업 공고

공모기간 | 2011. 05. 16(월) ~ 2011. 08. 31(수)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출품 수 제한 없음, 4인 이내 공동출품 가능)

주최 | 광양시

주관 | 광양문화원

II. 공모내용

1. 공모주제

- 광양시 역사, 설화(신화, 전설, 민담 등), 향토문화유산, 자연생태자원, 민속, 구비전승, 인물, 생활풍습, 체험자원, 문화콘텐츠, 특산품 등
- 광양소재 유·무형 자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체성을 살린 창작테마 스토리
- 미공개자원(알려지지 않은 향토자원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차원), 일반자원(평범하지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 기존자원(기존 알려진 내용에 취재를 가미해 가치나 의미를 확장한다는 차원)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

※ 접수 및 관련내용 문의

광양문화원(061-761-3322), 광양시 관광진흥과(061-797-2721)

황성문화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예술특별강연회

황성문화원(원장 김광수)은 7월 18일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봉승선



민족사관고등학교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성립, 황성담, 정송모도자연공원, 풍수원천주교회, 향교, 한얼문예박물관, 황성침전전우기념공원, 강림의병총, 태종대를 돌아보며 황성군 관내의 향토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답사 후 답사기행문 및 연구문을 제출 받아 매년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애장지 '황성문화'에 수록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전통문화 체험학습교실



습교실은 7월 25일을 시작으로 8월 5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한지공예, 가야금배우기, 무형문화재 제4호 황성회다지소리 체험, 국악배우기, 화회탈만들기, 탈춤배우기, 천연염색, 사물놀이배우기, 전통떡 만들어 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생님을 초청해 '국가관 무엇인가'를 주제로 90여분간 문화강연을 진행했다.

황성문화원(원장 김광수)은 7월 19일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신대리 3층석탑, 봉복사, 구방리 망향의동산, 중금리3층

황성문화원(원장 김광수)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전통문화 체험학



정갑윤 국회예결위원장(가운데)을 방문한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우)과 김관 울산중구문화원장(좌)

전국 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예산증액 위해 지방문화원장 국회방문 이어져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위해 지방문화원장 국회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지난 10일(수) 변양섭 울산 울주문화원장과 함께 강길부 국회 예결위원 간사 면담을 가졌으며 이어 지난 16일(화)에는 임영주 마산문화원장, 정정희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이주영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9일(금)에는 김관 울산중구문화원장과 정갑윤 국회예결위원장을 방문하였다.

지 역	날 짜	시 간	공연단	공연명	공연장
경북 김천	8월4일(목)	17시30분	(주)파임 커뮤니케이션즈	아시아동화여행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강원 원주	8월23일(화)	19시	마당극패우금치	선녀와나룻꾼	원주치악예술관
충북 청주	8월26일(금)	19시	마당극패우금치	선녀와나룻꾼	청주박물관 야외무대
광주 북구	8월28일(일)	18시	(주)파임 커뮤니케이션즈	아시아동화여행	광주박물관 대강당
경북 청송	9월1일(목)	14시30분 19시30분	마당극패우금치	선녀와나룻꾼	진보문화체육센터
대구 동구	9월3일(토)	19시	마당극패우금치	선녀와나룻꾼	대구문화체육회관
서울 은평	9월23일(금)	19시	마당극패우금치	선녀와나룻꾼	은평문화예술회관
인천 강화	9월24일(토)	14시	극단Art-3Theatre	콩콩이와친구들	강화군문화회관
경남 진주	9월24일(토)	14시, 16시, 18시	(주)아트브릿지	게르아저씨	진주박물관강당
경기 양주	10월01일(토)	16시	마당극패우금치	선녀와나룻꾼	양주별산대놀이마당

2011년 다문화 지역순회공연

우리회에서 추진 중인 '2011년 다문화 지역순회공연'이 8월 한 달도 알차게 결실을 맺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5개의 전문공연단이, 16개 시·도의 24지역 찾아가는 공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해남 공연을 시작으로 마지막 경기 양주에서의 공연까지 2011년 다문화 지역순회공연은 지역의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민과 이주민의 상호소통의 계기가 되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장동정

- 8.10 변양섭 울산울주문화원장과 함께 강길부 국회 예결위원 간사 면담
- 8.14 부산 연제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영브러더스' 과천대공원 공연 방문 및 격려
- 8.16 임영주 마산문화원장, 정정희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이주영 정책위원회 위원장 면담
- 8.18 김준식 안동 전 문화원장 빈소 방문과 함께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 8.19 김관 울산중구문화원장과 함께 정갑윤 국회예결위원장 방문

- 8.20 공주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과천대공원 공연 방문 및 격려
- 8.21 의정부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과천대공원 공연 방문 및 격려
- 8.22 시흥 정상중 원장 부친상에 조문을 하고 정원장을 위로하였다.
- 8.27 팔공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과천대공원 공연 방문 및 격려
- 8.28 영광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과천대공원 공연 방문 및 격려

신임 원장



**전남도지회장
김석철**

임기 2011.7.21 - 2014.7.20
현) 목포문화원장
(2004. 11. 1 - 2012. 10. 31) (8년)
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전국 강사
국립목포교육대학부속초등학교 근무
전) 목포학생도서관 초대관장
전) 영암교육청 장학실장



**서울 중구문화원
김장한**

임기 2011.8.17 - 2015.8.16
명동상가번영회 회장
서울시 중구구의회의장
민주평통지문회의 중구협의회장
충무공 이순신 기념사업회 회장



**강원 인제문화원
남덕우**

임기 2011.8.4 - 2012.5.9
인제문화원 이사
인제군의회 부의장



**충남 대천문화원
임기석 재임**

임기 2011.7.1 - 2015.6.30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예총 보령지부장 역임
보령문화연구회장 역임



**충남 청양문화원
임효식**

임기 2011.7.27 - 2015.7.26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새마을 중앙회 청양지회장 역임
청양군 소방대 연합회장 역임
청양문화원 부원장 역임

퇴임 원장



**전남도지회장
김학근**

곡성문화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광주전남협의회장
(사)국조단군곡성성모회 대표이사



**서울 중구문화원
소수영**

전) 명동 태평장학회 회장
전) 중구문화원 이사 및 부원장
현) 한국양곡협회 중앙회 회장
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부회장



**충남 청양문화원
정재권**

한국문인협회 회원(시문과)
뉴스청양 대표이사 역임

동 정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8월 19일, 중앙대 대학원에서 음악학 박사**

'전통음악을 활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최종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부 고

경남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이정봉 별세

8월 24일 이정봉 고성문화원 사무국장이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전국 사무국 동정

서울 종로문화원 사무국장 권대섭

임용 | 2011.07.25 ~ 2013.06.24 서울문화투데이기자

서울 종로문화원 인사발령 김미정 과장 승진

부산 연제문화원 사무국장 이한용

임용 | 2011. 07. 01 연제구청 주민복지국장

제8회 한국추사서예대전 개최요강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문화원(한국추사서예대전 운영위원회)이 주관하는
제8회 한국추사서예대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서예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타단체 초대작가도 출품가능)

〈전시내용 및 출품기간〉

부 문	원서교부	작 품 접 수	심 사 발 표	전 시 기 간
한문, 한글, 문인화, 추사체, 전각	2011년 7월1일	2011년 9월 19일-21일 (18:00까지) (우편접수시 21일 도착분에 한함)	2011년 9월 29일 (문화원 홈페이지, 개인통보)	2011년 11월 15일-21일

▶ 원서 교부처 | 과천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www.gccc.or.kr)

▶ 작품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1-7 과천문화원
(우편번호 1427-090 전화 102)504-6514)

▶ 출품료 | 1점당 2만원

(온라인 계좌 | 농협 211084-51-053309 예금주 과천문화원)

▶ 출품방법

- 1) 직접 작품접수처에 방문하여 출품
- 2) 출품료를 출품자 이름으로 온라인 입금 후, 작품과 원서는 함께 동봉하여
등기 우편으로 우송 (*우편환, 현금동봉 불가)

▶ 규 격 | 전지이내(반절지 이상) - 배열하지 않은 작품
(전각은 가로45cm×세로70cm미만)

▶ 출품수 | 제한 없음 (체를 달리해야 하며, 1점당 각각 출품원서를 제출해야 함.)

▶ 출 품 내 용 |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미발표작품

▶ 심 사 방 법 | 집행부에서 결정함.

▶ 표 구 | 입상자 전원 일괄표구(족자)

▶ 전시장소 | 과천문화원 전시실 및 다목적홀

▶ 시상식 | 2011년 11월 15일 (과천문화원 전시실)

▶ 시 상

종합대상 - 1명(상금 600만원)

분야별대상 - 4명(상금 각 300만원)

우수상 - 4명(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 약간명 (상금 각 30만원)

특 선 - 50명(상금 각 10만원)

입 선 - 다수

- 종합대상, 분야별대상, 우수상은 현장 휘호를 하여 확정함(불참시 입상에
서 제외) - 휘호 일시 추후 발표
- 종합대상, 분야별대상, 우수상 작품은 주최측에 귀속함.
- 입상자는 표구비, 도록비 6만원을 기한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
우 입상이 취소됨.

▶ 초대작가 | 본 대전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초대작가로 인증함.
(종합대상6점, 분야별대상5점, 우수상4점, 특별상/특선3점,
입선1점)

▶ 작품반출

- 1) 전시작품 - 일괄 착불택배로 배송
 - 2) 낙선작품 -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직접 작품접수처로 방문하여 반출가능
(또는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전화로 요청시, 추후 일괄 착불택배로 배송)
- 기간내 찾아가지 아니하는 작품은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 과천문화원 (전화 | 02-504-6514)

▶ 홍 보 | 월간 서예, 월간 서예문인화, 과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주 최 | 과천시 주 관 | 과천문화원 (한국추사서예대전 운영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추사기념사업회, 월간서예, 월간서예문인화

